

데스크 시각

차기 광주은행장 '낙하산'은 안 된다



최재호

경제부장

유럽의 재정위기, 일본의 아베노미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약적완화 출구전략에 이어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중국발 악재가 터졌다. 한국경제가 외부 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 악재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이를 위한 갖가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않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현이 악재 속에 지역경제계는 '광주은행 민영화'라는 중요한 화두와 마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은 초기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먼저 광주은행 매각의 전제 조건으로 '최고가 매각'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우리은행지주는 신임 행장 공모 절차에 들

어갔다. 매각 문제는 방식과 절차 등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은행장 선임은 민영화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다음 주면 차기 행장이 결정된다.

내부출신 승진 나와야

현재 금융계는 차기 행장으로 내부 출신 승진 인사(조현익 부행장)와 우리금융 전·현직 임원(최승남 전 부사장)간의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역경제계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승진 행장이 선임돼야 한다는데 핵심리를 내고 있다.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광주은행의 민영화와 지역 환원도 은행장 선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문을 연 후 45년 동안 광주은행 출신이 단 한차례도 은행에 오른 적이 없다. 광주은행과 함께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경남은행도 5대 김형영 행장과 6대 이춘영 행장이 내부 출신 행장이다.

대구은행은 6대 흥희흡 행장만 외부 출신 일 뿐 무려 40년 동안 외부인사 행장이 없다. 대구은행은 낙하산 행장을 배격하기 위

해 현임 행장이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자행 출신 행장을 선임한 후 퇴사를 결정할 정도다. 이에 외부에서 은행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행 출신 선임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행도 10대 이장호 행장과 11대 현성세 행장이 부산은행 출신 은행장이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은 자행 출신 행장이 자취하면서 탄탄한 지역기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광주은행으로선 자존심이 구겨질 수밖에 없다. 반면 낙하산 인사는 지역과 유리되고, 업무 파악도 그만큼 더뎌 조기 민영화라는 난제를 푸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선임 후 곧바로 지역민과 경제계, 광주은행 임직원의 총의를 모아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낙하산 인사는 지역과 유리되고, 업무 파악도 그만큼 더뎌 조기 민영화라는 난제를 푸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금융계에서는 BS금융지주 회장 사퇴 등으로 인한 관치논란과 45년 동안 광주은행 출신 행장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광주은행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서 지역정서와 광주은행 사정에 정통한 내부출신을 우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여론과 현실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내보낼지, 아니면 지역민과 상공인,

광주은행이 요구하는 '내부 승진' 은행장이 선임될지 우리금융지주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 lion@kwangju.co.kr

社說

광주은행 매각, 지역에 우선협상권 줘야

정부가 광주은행 분리 매각의 전제로 '최고가 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민과 상공인이 요구하는 향토은행의 지역 환원에 비상이 걸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은행 환원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광주은행 매각 방식은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자구노력과 지역민의 애정을 통해 전국 지방은행 가운데 네번째로 큰 우량은행으로 급성장했다. 지역민들은 광주은행을 살리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내고도 이를 이용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광주은행 환원을 위해 지역에 우선협상권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이를 정부에 적극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말 그대로 광주 주인이 돼야 하는 것이다.

광주경찰 치안만족도 전국 꼴찌라니

150만 명의 친인을 책임지는 광주경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거나 범죄 피해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찾는 112 신고 처리 분야에 대한 불만도 상대적으로 높은 나찰가를 쏘내기 어려워 지역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광주은행이 탄생행에 인수된다면 당장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고

착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이 지역 지

수단이다. 하지만 꼴찌라는 건 그만은 옹대 태도나 서비스가 영망이라는 얘기다. 아래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구원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업무 중요도가 가장 높은 수사·형사분야의 만족도도 12위로 하

락된다. 최근 경찰청에 실려온 대

부족한 경찰청은 12위로 하락된다.

최근 경찰청이 실시한 '2013 상반기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광주경찰의 만족도가 전국 16개 경찰청 중 13위에 그쳤다. 이는 사실상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광주경찰은 민원 112 신고 처리, 교통사고 조사, 수사·형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와 함께 77.9점

을 받아 16위인 서울, 15위인 인천 다음으로 저조했다. 특히 112 신고 처리 과정

에서 느낀 만족도(73.6점)가 전국 16개 경찰청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한다.

112 신고는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경찰과 접촉하는

無等鼓